

도시 곳곳 정비·활용해 공공공간 창출하려는 시도 이어져

부산시 총괄건축과 건축지원팀
2023. 7. 10.

대전시 경제과학국 농생명정책과 동물정책팀
2023. 7. 15.

경기도 회계장비담당관 소방자산관리팀
2023. 7. 31.

부산시, 도심 속 작은 쉼터 공개공지 활성화 모색

부산시가 건축물 내 노후화된 공개공지 리모델링을 위한 공사비를 지원하는 ‘공개공지 활성화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공개공지는 건축물에 조성되는 소규모 휴식시설로, 시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공공공간이다.

시는 노후·파손 및 기능 저하로 시민이용도가 떨어진 공개공지에 편의시설 등을 보강 설치하여 열린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회복하고, 시민들에게 도심 속의 작은 쉼터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한다. 사업 대상지는 공모로 모집하며, 조성 이후 5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 한한다. 선정위원회 심사를 통해 시민 접근성·활용도·공공성·창의성 등을 평가하여 5개소를 우선 선정할 예정이며, 개소당 최대 2,000만 원을 지원해 편의시설과 운동기구 보강 및 수목 식재 등을 돕는다는 계획이다.

대전시, 도시 내 반려동물놀이터 조성 본격 추진

대전시는 도시 내에 반려동물놀이터 3개소를 2025년까지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시는 부지 확보를 위해 공원·시유지·완충지·하천 등 국·공유재산 6,700여 개 부지를 검토하고, 반려동물 양육자 3,800여 명을 대상으로 수요 조사 등을 진행한 바 있다.

시에서는 현재 반려동물놀이터 두 곳이 운영 중이며, 새 놀이터는 현재 놀이터가 없는 세 곳의 지자체(동구, 중구, 서구)에 조성될 계획이다. 시는 관계 부서 및 기관과의 협의를 완료하고 ▲대전우송정보대학교 반려동물 훈련장 운동장 부지(동구, 2,000m²) ▲(주)CNCITY에너지 본사 유희부지(중구, 1,000m²) ▲도안 친수구역 갑천생태공원 조성지(서구, 1,386m²)를 확보하였으며, 각 구청 및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경기도의 활용도 낮은 소방청사 공간, 도민 쉼터와 미니 도서관으로 탈바꿈

경기도소방재난본부의 활용도가 낮은 소방청사 공간을 도민들을 위한 쉼터와 미니 도서관 등 도민과 함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는 ‘소방청사 공간 활용도 개선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올해 첫 시범사업에는 김포소방서 하성119안전센터와 포천소방서 소흘119안전센터 두 곳이 우선 참여한다. 김포소방서는 1층 1인 대기실을 도민 쉼터로 개조해 지역 어르신 건강관리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포천소방서는 지하 1층 창고를 미니 도서관으로 꾸며 지역 학생들에게 제공하게 된다. 도서관 한편에는 간이 심폐소생술 체험장도 마련한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올 하반기 리모델링 공사에 이어 운영을 실시해 주민 만족도를 조사하고, 소방청사 공간 활용방안 사업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